

“시민의 自矜心과 團합을 고취하자”

제4회 포천시민의 날 및 시승격 기념행사

포천시는 시 승격 3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자긍심과 단합을 고취하고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건설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1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제4회 시민의 날 및 시 승격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4개 읍면동 주민들은 물론 재경포천시민과 기업인 대표, 군인 가족들도 참석해 화합의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또 포천시 자매·우호 도시인 중국 화이베이시 예술단과 조병산시 시장, 주한 벨로루시 대사, 주한 태국 및 인도 대사관 관계자 등이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했다.

시민의 날은 식전행사로 8사단 군악대 퍼레이드와 포천소년소녀합창단 공연, 포천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와 경북대학 치어리더팀의 공연, 노아의 집 장애아동들의 두드리 댄스, 어머니와 함께 공굴리기, 포천 일고 학생들의 포천메나리 시연, 아프리카 토속춤 공연, 포천시립민속예술단 공연, 중국 화이베이시 예술단 공연, 마상 무예, 포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부채춤 공연 순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오후 4시에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포천시는 시 승격 3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자긍심과 단합을 고취하고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건설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1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제4회 시민의 날 및 시 승격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사단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대형태극기와 포천시기가 입장했고 14개 읍면동 주민들이 입장했다. 이어 내빈 소개, 시민현장 낭독과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전영록, 이용, 이은하, 정수라 등 인기가수와 SBS 김정택 관현악단이 출연하는 '축하콘서트'가 오후 6시

부터 1시간 30분 동안 펼쳐진 뒤, 리본 김동규가 출연하는 '3인 3색 라이브 콘서트'가 저녁 7시 30분부터 100분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펼쳐져 포천시민의 날을 더욱 뜻 깊게 했다.

기념식이 끝난 직후 포천시의회 주최로 한탄강댐 건설을 단숨에 흡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의회 의장 권은오는 포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부터 1시간 30분 동안 펼쳐진 뒤, 리본 김동규가 출연하는 '3인 3색 라이브 콘서트'가 저녁 7시 30분부터 100분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펼쳐져 포천시민의 날을 더욱 뜻 깊게 했다.

기념식이 끝난 직후 포천시의회 주최로 한탄강댐 건설을 단숨에 흡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詩人들의 맑고, 밝은 마음’

제2회 마홀시회전, 時空에 存在하는 詩世界

‘생활속의 즐거운 문학’을 추구하는 작고 소박한 문학단체 마홀문학회 제2회 시회전이 10월12일부터 15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마홀문학회(회장 손진홍)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문화원, 포천예술인동우회가 후원해 마련됐다.

‘時空에 存在하는 詩世界’를 보여준 이번 전시회에는 포천시 이동면 출신 스토리문학 김순진 발행인이 초대작가로 참여했다.

손진홍 마홀문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회전 계획을 세우면서 테마 있는 기획전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시가 한지공예와도 만나고, 고풍에도 만나고, 동, 목향, 나무와도 만나는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작품을 기획했다”고 밝히고 “시인들의 맑고, 밝은 마음이 샘솟듯 흘러나와 포천의 시문학이 시민들의 가슴을 적셔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회전 개최식에 참석한 박운중 포천시장은 “보고 느낀 것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제하고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전시회 기간동안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규 포천문화원장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를 모아 작품활동을 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학동아리인 마홀문학회의 발전이 자랑스럽고 장래가 매우 밝다”며 “더욱 정진하여 후세에 널리 애송되는 명작을 남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찬 포천예술인동우회장은 “시골지역에서 글쟁이, 그림쟁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며

“이 지역의 어려움,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회 마홀시회전에 참여작가는 다음과 같다.

- ▶ 손진홍 ▶ 이병찬 ▶ 이석규 ▶ 이원용 ▶ 이종훈 ▶ 김경자 ▶ 하은 ▶ 이종희 ▶ 박경옥 ▶ 강돈희 ▶ 김성진 ▶ 김혜숙 ▶ 나지누 ▶ 최영진 ▶ 김철형 ▶ 양영옥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농어촌 복합體育시설 기금지원협약’ 체결

소흘읍 이동교리 산 1번지 자기운동센터 등 건립추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 1번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6월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15개 자치단체에 대해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포천시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전북 순창군, 경남 산청군 등 7개 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 올림픽파크호텔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손재택 상무와 포천시 황영철 부시장을 7개 지역 부단체장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은 공공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복지시설을 겸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부터 매년 7개 지역을 선정,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5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됐으며 여기에 시비 2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7억 5천만 원으로 현재 소흘읍 이동교리 산 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내에 자기운동센터, 육의 다목적구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사업 착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민체육진흥공단 손재택 상무(왼쪽)와 포천시 황영철 부시장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광릉숲 保存을 위한 미술전

19일부터 31일까지 연꽃이미지 작품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권은오)은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광릉숲 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광릉연꽃 PROJECT - 하얀집에 살다’ 미술전을 개최한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본래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연꽃이미지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육림호 및 실개천에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다.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국립수목원 광릉숲은 500년 넘게 자연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된 역사가 담겨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숲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의 목적은 예술이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적 모색과 누구나 공감할 수 생애지향적인 미술의 표현을 위해 외부의 개발환경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해온 국립수목원 광릉숲을 대상으로 하여 예술에 대한 이해증진과 광릉숲 보존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일깨우고자 기획했다.



작품의 특성은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로부터 광릉숲을 보호하고 보존해야한다는 염원을 흰색 연꽃(알매)의 형상을 빌려 표현했다.

전시 작품 10점은 국립수목원 내에 있는 육림호와 실개천에 설치하여 전시하게 된다.

전시는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관람객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정부는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라

정부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연중 15일 정도만 댐에 담수한다는 상식이하의 발상으로 340만평의 농토를 수장시키고 우리의 입장에 반하는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포천시 주민들의 한뜻 한뜻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홍수조절용댐을 반대하고 포천시민을 위한 다목적댐을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에서 계획하는 홍수조절용 댐은 집중 폭우시에 발생하는 홍수를 대비하는 것으로 그 실익은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가져갈 뿐 우리 포천시에 남는 것은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훼손 등 환경오염 뿐이다.

수몰지역에 고향을 둔 주민과 현재 수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들이 고향과 삶의 터전까지 내어주면서 받게 되는 고통과 연중 15일 동안 담수되고 난 뒤에 어떠한 동·식물, 수목도 살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버린 시뻘건 땅덩어리를 상상하여 보았는가?

포천·연천·철원 수몰지역의 대부분인 74%를 차지하고 연천과 철원에 비해 훨씬 많은 228세대가 수몰되는 포천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정비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포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포천 주민들이 정부 정책을 위해 목숨 같은 땅을 헌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은 국내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대규모 홍수조절용 댐으로써 실험용 댐에 불과할 뿐 그 안전성과 홍수조절의 능력, 그리고 댐이 환경에 주는 영향, 어느 하나 안심할 수 없다.

정부는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홍수조절은 물론 앞으로의 물부족을 대비하여 수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관광개발계획 등 수몰주변지역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댐건설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포천시의회는 다시 한번 정부에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을 백지화하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16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16만 포천시민 의견은 홍수조절용 댐을 즉각 철회하고 다목적댐을 지지한다.
2.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은 포천시와 자연을 죽이는 살상 행위로 즉각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라.
3. 우리 16만 시민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11월에 범시민 쟁기대회로 강력히 대응하자.

2006년 10월 19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 한탄강다목적댐 건설 시민추진위원회